

《Letter to a Christian Nation》

종교는 현대 사회의 약인가 독인가?

김주현 옮김
 창비 펴냄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은 윤리와 인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일부 정치 평론가들의 카터에 대한 평가는 무척 매몰차다.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고, 종교를 백악관에 끌어들이는 장본인이며, 요즘들어 미국 정치가 기독교 근본주의로 치닫는 단초를 제공한 어리석은 대통령이란 평가다. 이런 관점에서 샘 해리스(Sam Harris)는 작년에 발표한 《신앙의 종말》(The End of Faith, W. W. Norton)에서 종교적 믿음이 현대인 삶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후 이 책에 대한 격려와 비판이 쇄도하자 해리스는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번에 《한 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편지》(Letter to a Christian Nation, Knopf)를 발표했다.

해리스는 “기독교의 지적이고 도덕적 위선을 분쇄하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먼저 도덕적 위선부터 보면, 저자는 첫 책에 대해 가장 적대적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들이 말하는 용서와 사랑은 대체 어디로 갔기에 그까짓 책 한 권에 분노하고 적대감까지 표출했을까? 또한 간음, 동성애, 부모에의 불순종 등에 대한 구약의 율법에 얽매어 인간의 고통을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구시대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콘돔의 사용, 출기세포 연구, 낙태, 인체유두종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을 반대하는 비인권적 행태를 보인다.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는 무엇인가?

지적인 위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에 실시한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3퍼센트가 창조설을 믿는다고 한다. 게다가 미국인의 44퍼센트가 향후 50년 내에 예수가 재림해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까지 심판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한다. 이런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준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런 믿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제정신이 사람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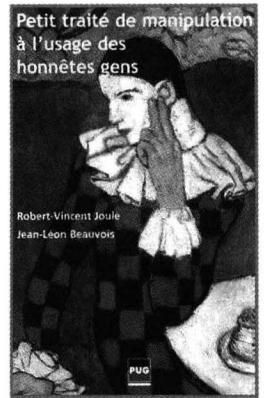
해리스는 논점을 넓혀서 종교 간의 반목도 지적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리스는 종교적 관용, 상호존중,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의 근본주의를 비판하기가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한편 해리스는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삶의 활기를 북돋워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믿음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해리스가 이 책에서 내리는 결론은 종교가 과거에는 인간에게 유용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21세기에는 글로벌한 문명을 건설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가 작년에 발표한 책의 결론과 다르지 않다.

그럼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비기독교인은 이 책을 유쾌하게 읽어도 상관없지만 기독교인은 이 책에 분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왜 이런 책이 쓰였고, 출간되고 1주일만에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는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기독교인의 위선이 바로 이런 책의 출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할 때 기독교는 성경에 쓰인대로 사랑과 용서의 종교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바람으로 끝날 듯하다. 이 글을 쓰는 날에, 우리나라에서 한때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던 목사가 한 정당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비록 윤리위원장이었지만 … **▶**

글쓴이 _ 강주현(번역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조작 지침서》

일상의 심리전을 위한 매뉴얼



어린 시절 한번쯤 '염력'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변사람들이 움직여 준다면 하고 상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동생에게 주술을 걸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심부름을 해주고, 엄마한테 주술을 걸면 저녁때 내가 꼭 먹고 싶던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아빠는 내가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온 날도 그냥 말없이 넘어가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초능력이 아니라도 유난히 남들에게서 원하는 행동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카리스마가 넘치거나 남을 압박할 수 있는 권력이 있거나 또는 특별히 언변이 좋아서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가지는 심리적 경향들을 날카롭게 꿰뚫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밖에서 급히 전화를 걸 일이 있는데 마침 지갑과 핸드폰을 모두 두고 나왔다고 하자.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100원을 빌리기로 했다. 이때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다가가 100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당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돈을 빌리기 전 먼저 시간을 물어본 뒤 100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는 실제 해리스(Harris)라는 미국 심리학자에 의해 행해졌던 심리학 실험으로, 시간을 물어본 뒤 돈을 빌릴 때 성공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보다 쉽게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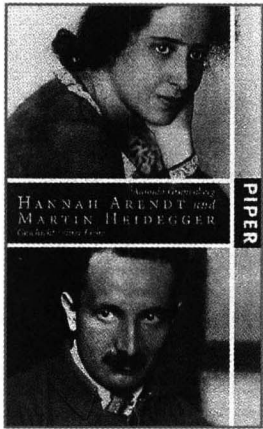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장-레옹 부보아와 로베르-뱅상 줄이 지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한 책략 지침서 Petite traité de manipulation à l'usage des honnêtes gens》는 제목이 말해주듯 타인을 조종하는 이런 책략들을 재미있게 기술한 책이다. 심리학 이론서이면서도 난해한 전문용어 없이 우리 일상에서 목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프랑스에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또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자. 학생들에게 조금은 지루한 강연에 참여하도록 초대해야 한다. 더 곤란한 것은 강연이 아침 일곱 시에 시작한다는 것이다. 한 그룹에게는 시간을 미리 말하지 않고 참석 여부를 물어본 다음 뒤늦게 시간을 말해주고 재차 참석 여부를 묻는다. 또 한 그룹에게는 처음부터 강연 시간을 알려주고 참석 여부를 물어본다. 어떤 그룹이 더 많이 참여할까? 앞의 그룹이 훨씬 참여율이 높다.

이런 현상을 설명한 이론을 심리학에선 '개입이론(théorie de l'engagement)'이라 한다. 개입이론은 자신이 한번 한 행동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 하더라도 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하려는 심리를 말한다. 사람들은 한번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실행한 이후엔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언더라도 앞서 내린 결정을 쉽게 철회하지 않고 견지하려 한다. 그래서 일단 참여를 결정한 사람은 그것이 아침 7시란 사실을 알고서도 쉽게 결정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지은이는 타인의 심리를 조작하여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심리적 기술들을 '미끼 던지기(amorcage)', '발 들여놓기(pied dans la porte)', '코앞에서 문 닫기(porte au nez)' 등의 재미있는 분류들과 함께 보여주며,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심리전의 덫을 놓거나 그 덫에 빠져드는지 깨닫게 만들어준다. 지은이가 책 제목에 굳이 '정직한 사람들을 위한'이란 단서를 붙인 것도 이 책이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현상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한 책이란 뜻에서다. **지은이**

글쓴이 _ 조정훈(번역가)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 - 어느 사랑 이야기》

열정의 사상가, 한나 아렌트의 사랑

올해는 독일 태생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그녀에 대해 20세기의 위대한 여류사상가들 중의 하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녀의 머리는 늘 열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열정의 사상가라고나 할까. 그녀의 본질은 열정이라는 말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

1924년 가을 괴니히스베르크 출신의 한나 아렌트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마르부르크에 도착한다. 그곳 대학에 한 젊은 철학자가 훌륭한 강의를 펼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따라나선 것이다. 하이데거는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단아로 불렸다. 그는 친구인 칼 야스퍼스와 함께 철학과 대학을 근본부터 혁신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18살의 철학과 여학생으로서 이미 유부남인 35살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를 만났을 때도 그녀의 가슴속에서 작용한 것은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에로스였다. 하이데거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아렌트 양. 오늘 저녁에 난 당신을 찾아가 당신의 가슴을 향해 말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전통을 거부하며 나중에 한나 아렌트가 “난간 없는 사고”라고 표현했듯이 열린 세계를 지향하는 열정적인 사고에 빠졌으며 그에 못지않게 에로스의 물결에도 몸을 맡겼다. 그들에게는 우정과 신의, 논쟁을 향한 열망 같은 것이 함께 춤을 추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사회의 모든 모순에 맞서려는 일종의 실존철학적 구상으로 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당신 것이나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라고 했던 하이데거의 고백이 보여주듯 밀도 있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진다. 하이데거가 자신만의 사고와 작업 속에 파묻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 만남 때부터 사랑을 느꼈지만 한나는 그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길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고 힘들었기” 때문이다.

올덴부르크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안토니아 그루넨베르크가 올 9월에 출간한 이 전기는 2차 대전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두 열정적인 지성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란 무엇인가를 짚어본다. 특히 한나 아렌트는 유대계 독일인으로서 나치의 속박에 시달렸고 하이데거는 나치에게서 자신의 희망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두 인물은 대척점을 이룬다. 1933년 독일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아렌트의 경우엔 트라우마와 같은 나치의 정치적 박해가 그녀를 현실의 무대와 늘 연결점을 갖는 정치 이론가로 만들어주었다. 반면에 하이데거의 경우엔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가 정신적 재앙을 초래한 아픈 경험은 그를 철학의 세계 속에 모든 것을 걸고 철학 속으로 빠져든 은둔자로 만들었다.

65세의 하이데거는 아내 엘프리데에게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 속에 살아야 한다”고 고백한다. 그렇게 해서 1941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던 한나와, 하이데거는 지리상의 거리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친분과 신뢰를 되찾는다. 1960년에 《일상생활에 대하여》라는 책을 내면서 한나는 그 책을 하이데거에게 헌정하려 하였으나 생각을 바꾼다. 그녀의 유고에서는 이런 메모가 발견되었다. “내가 신의를 지키기도 또 지키지도 못했던 당신께 내 이 책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이데거의 철학적 사고를 정치 쪽으로 열어준 사람은 바로 한나 아렌트이다. 두 사람 사이에 걸로는 헤어짐이 있었지만 한나 아렌트에게 늘 신뢰가 있었다. 그녀의 철학사상의 근본원리인 “아모르 문디” 즉 “세계에 대한 사랑”이 그렇듯이. **홍지민**

글쓴이_김재혁(번역문학가, 시인, 고려대 교수)

《중원의 무지개》

서태후가 지배하는 청나라를 배경에 둔 역사소설



개인적인 구분에 불과하지만, 소설가에는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과 이야기를 꾸미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일본 작가를 예로 들자면, 전자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겠고 후자는 아사다 지로라고 하겠다.

모든 인물과 사건을 인상파 그림 같은 이미지로 그리는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만 있는 것이 아니듯, 신기하고 기발한 얘기를 써내는 소설가가 왜 아사다 지로밖에 없겠느냐마는, “옛날 옛날에…….” 하는 뻔한 말로 시작한 노인네의 얘기가 아이들의 잠을 싹 쓸어가 버리듯이, 대단찮게 시작한 얘기로 어느 사이엔가 사람을 바싹 다가앉게 만들어 버리는 얘기꾼으로서의 아사다 지로 이상 가는 작가를 알지 못한다. 더구나 책을 덮고서도 눈물이 나게 만드는 그 솜씨를 누가 따르겠는가.

그런 아사다 지로가 특별히 애착을 지닌 작품이 있었다. 원작의 띠지에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소설가가 되었다”고 밝힌 그 소설은 《창궁의 묘성》으로, 일본에서는 큰 인기를 모았으며, 그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한경북스)과 2006년(창해, 재발간)에 각각 발간된 바 있다. 《창궁의 묘성》은 아사다 지로가 단순한 얘기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큰 스케일을 바탕으로 정교한 인물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었음을 증명해 보인 작품으로 평가받았지만 작가는 그 이후로는 그만한 규모의 작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참으로 오랜만에 역사 장편을 발표했다. 제목은 《중원의 무지개》. 전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제목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중국을 무대로 하는 소설이다. 중국을 무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궁의 묘성》처럼 서태후가 지배하는 청나라를 배경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창궁의 묘성》, 《진비의 우물》의 뒤를 잇는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원의 무지개》가 꼭 이전 작품인 《창궁의 묘성》을 읽어야만 맛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원의 무지개》는 서태후의 청나라를 배경으로 두기는 했지만 몰락하는 왕궁 담 너머의 가난한 고아 장쥘린을 주인공으로 두고 풍운 속 영웅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소설은 고아에서 마적의 우두머리로, 더 나아가 중국 전체를 손에 넣으려는 대야심가로 커가는 장쥘린을 그리는 한편으로는 역대 황제의 상징으로서 ‘가진 자는 천하의 대장군이 된다’ 전설을 지닌 ‘용옥’의 행방을 좇는 미스터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주인공 장쥘린은 역사상의 실제 인물로, 러일전쟁 때 일본의 편에 서는 등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일본을 이용하여 만주를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을 장악하는 거대 군벌로 성장한 인물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장쥘린을 중국에서는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보고, 일본은 자신들을 배신하고 미국 등과 손을 잡아 중국을 새로 세우려 한 위험인물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묘사될지, 완간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조차 독립군을 일본에 팔아먹은 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창궁의 묘성》에서 희대의 악녀이자 중국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치부되던 서태후를 새롭게 조명한 아사다 지로가 이번 《중원의 무지개》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 백안시당하는 군벌 장쥘린에 대해 어떤 해석을 보여줄지,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1996년 《창궁의 묘성》발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동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또 다른 역사 서사극에서 얘기꾼 아사다 지로가 얼마나 발전된 기량을 보여줄지, 팬으로서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9월 말 1권 출간을 시작으로 11월 초순에 2권 발간, 2007년 중에 완간 예정이다. **한경북스**

글쓴이_ 윤덕주(번역가·출판기획자·(주)엔북 대표)